

영적 부활 휴거 부활

본 문 요한복음 5장 24-25절

영적 부활, 신부로 변화, 더 좋은 부활로 휴거

- ◆ 부활의 첫 번째 핵심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입니다. 죽어있던 생각이 말씀을 들으니 살아납니다. 생각이 살아나니 행실이 살아납니다. 변화된 생각과 행실을 먹고 영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 ◆ 부활의 두 번째 핵심은 시대적인 부활입니다. 구약은 종급, 신약은 자녀급, 성약은 신부급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의 조건을 세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라 그 생각과 행실이 신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 ◆ 세 번째 부활의 핵심은, 부활은 한 번만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 동안 진수성찬 한 끼 잘 먹었다고 일평생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맞는 양식을 먹어야 계속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 행실, 영혼도 늘 차원 높게 선포되는 이 시대 말씀을 들으면서 더 좋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날마다 더 좋은 부활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성경에 약속된 휴거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 ◆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행실이 휴거를 이루게 됩니다. 육신은 땅에서, 영혼은 황금성 천국에서 이루는 휴거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의 자격으로 휴거 되는 것입니다.
- ◆ 결혼식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살아계신 당세에 더 멋지게 해야 합니다. 더 좋은 부활과 휴거를 이뤄야 합니다. 생활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생활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심정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와 완전히 심정 일체, 행실 일체 되어 진정한 사랑의 신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온전하게 할 것 온전하게 하고, 부활절을 맞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심, 지구 땅에서 주 맞이함

- ◆ 오늘은 섭리사의 큰 기쁨의 행사인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제대로 되어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고 시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 ◆ 기독교에 있을 때 가장 희망적인 것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좋은데, 잠깐 있다 죽는 육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육신은 죽었고, 영은 살아났다고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주께서 죄를 위해 육신은 죽으셨고, 영은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 ◆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영으로 살아나셨으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영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 ◆ 사람들이 99.9% 육신 부활로 믿었는데, 나 하나만 육신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산에서 깨닫고 와서, 먼저 아버지께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 ◆ 본문 요한복음, 요한이 글을 잘 썼어요. 나도 불펜 4000자루 썼으니 글쟁이에요. 거짓말을 써도 힘든데, 참말만 썼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실로 진실로”는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참말, 참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요,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무덤은 육신의 무덤이 아

닙니다.

- ◆ 예수님은 영이 살았으니, 영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육신이 살았으면 이 땅에 계속 계시어야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활동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육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육이 행하신 표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영으로 사셔서 영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고기를 먹었으니 육이 산 것이라고 하는데, 영계에서나 꿈에 음식 먹지요? 영적으로 먹은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 ◆ 40일 만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육신이 있으면 더 오래 이 땅에 계시지요. 밤새도록 말씀 전하셨겠지요. 나도 나와서 이들 동안 청기와 집에 못 갔어요. 계속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 ◆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공중에서 주를 맞고 혼인잔치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공중에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맞았습니다. 땅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약 모세 때도 땅에서 하고, 성약 때도 땅에서 주를 맞습니다.
- ◆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흰히 들렸어요. 이것은 재림주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메시아를 안 만난 자는 무조건 사망권에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권으로 옮겨옵니다.
- ◆ 성경을 정확히 알고, 기독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근거 있게, 조리 있게, 모순 없게 잘해야 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잘 얘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하면서 “육신은 죽었다. 영은 살았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 ◆ 요한은 매우 신령한 사람입니다. 밧모 섬에서 신령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도 의사이기에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기록도 동일합니다. 시체가 부활 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육적 부활, 시체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실의 부활을 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행실의 부활입니다.
- ◆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활을 확실하게 설명을 했는데, 2000년 흘러오면서 자기 주관대로 풀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었으니, 영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 ◆ 선생님이 유럽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 묻은 곳이 밝혀졌어요. 나사렛 예수, 요셉, 마리아 등 연관된 사람들 10명이 같이 쓰여 있어요.

기독교 부활절 마지막 행사에 단상 가운데 앉으심

- ◆ 여의도 광장에서 하던 기독교 부활절 행사를 없애달라고 해서 그 후 싹 없어졌어요. 마지막 모임 때 선생님이 참석했어요. 그 때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도해서 여의도 광장에 갔어요. 단상에 앉으려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가자고 하셔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가던 길로 바로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집행부들이 서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확인을 하는데, 나는 확인을 안 하고, 아무도 나에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말을 하겠어요. 나는 몰랐지요. 단상 가운데 딱 한 자리가 있어서 가서 앉았어요. 다 보이고 정말 좋더라고요.
- ◆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회장인 주필승 목사가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았으니, 그때 당시 나를 분명히 내보내고도 남았

을 텐데, 안내자는 알 텐데, 아무도 나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나는 앉아서 사방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집회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옆의 사람에게 모인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고 물으니 60만 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일 전에 주필승목사와 얘기하면서 그 집회가 마지막 집회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주필승목사가 말하기를 그때 1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 ◆ 주필승 목사님이 대회장으로 준비를 다 해 놓고 단상 위에서 쳐다보는데, 어떤 여자가 계속 돌아다니기에 가서 보니, 영 들린 것이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정신이 돌아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경찰이 주필승목사님에게 와서 왜 여자를 잡고 추행했느냐, 머리를 잡고 왜 그랬냐 하기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미쳐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경찰이 안 믿어주고, 대회장이라 빨리 가야 하는데 조사를 한다고 하니,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귀신이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여자가 바로 또 미쳐서 조사하던 경찰 머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있다가 두 시간 반이 지나서 집회하는 곳에 돌아와 보니, **가운데 자기 자리에 잘생긴 사람이 앉아있더라요.** 그때 단상에는 1억, 2억씩 돈 낸 장로들이 앉고, 노회장이 앉았는데, 가운데 앉은 선생님을 보고 보안정보국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묻지 않았답니다.
- ◆ 그때 선생님께 누구냐고 물었으면 내가 “주다.” 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자리, **대회장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앉으시고, 마지막 집회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첫 집회도, 마지막 집회도 다 참석하게 하셨어요. 첫 집회는 통일교 100만 명 모일 때 갔었어요.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자 오셔서 주와 70년 역사 후 3.16 휴거

- ◆ 새로운 역사의 부활, 종이 아들이 되는 부활의 역사가 2000년 갔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오면 아들이 아닌 신부급으로 부활 됩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고, 신부의 말을 들으면 신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이니 신부급으로 왔습니다.
- ◆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상과 사고로 변화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자가 해서 그로 인해 변화되고 성장 되었습니다. 성장 된 후에 바로 휴거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휴거의 역사는 보낸 자가 난 날로부터 70년 만에 했습니다.** 2015년 3월 16일에 했습니다.
- ◆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육적인 휴거 역사를 이룬 것이고, 영혼은 휴거 되어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절대자 성삼위 일체 중 성자께서 지상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책임지고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오셔서 나와 같이 70년 역사를 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휴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 영들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영은 갔어도 육신은 살아있지요. 여러분, 영을 전혀 몰랐어도 살아왔잖아요. 황금 천국은 우리만 알지요. 기독교는 자녀권 세계이기에 황금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 ◆ 자녀 방에는 자녀가 있고, 신부 방에는 신부가 있지요. 우리는 신부들이 되어서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 낳아서 성자와 함께 역사 펴고, 70년 되는 생일날 휴거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었습니다. 결국 3일 전, 시대 하와의 생일날 성자께서 알려주셨어요. “나 승천한다. 나 간다. 가면 신부들 데리고 간다.” “언제요?” “네 생일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그때 알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때 휴거 되는 것을 육신은 몰랐어도 영들이 가는 세계라 영들은 갔어요.

더 좋은 부활, 생활의 부활, 차원 높은 휴거 이루기

- ◆ 이제는 주와 같이 역사를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 더 찬란한 영으로 부활 되도록 하고, 생활의 부활, 더 좋은 생활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죽은 시체의 부활이 아니라 삶의 부활입니다. 더 좋은 이상세계를 살기 위해 더 철저히, 더 세밀하게, 더 분별하고, 더 열심히 잘 행해야 합니다.
- ◆ 모든 계획을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섭리사가 40살이 넘었으니 이제 중후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모두 하나 되어서 올해는 선교의 해이니, 많은 생명들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면 사는 것입니다. 구시대는 죽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메시아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새 시대에 살게 됩니다.
- ◆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새로운 역사를 펴고 갑니다. 구시대와 신시대 차이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큼니다. 선생님이 33살까지 구시대에 있어봐서 압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 ◆ 자동차와 비행기 차이입니다. 구시대는 구질구질합니다. 신시대는 “신나, 신나, 신바람 나.” 합니다. 엄청나게 뛰는 자들만 알게 되고, 얻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온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십배, 백배, 천배, 만배 더 뛰자고요.
- ◆ 새로운 시대에서 하나님과 주께 영광 돌리고 뛰고 달려야 제대로 부활 된 것입니다. 부활 된 세계의 삶을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잡아야 합니다.
- ◆ 지금 40년 했는데 이 정도인데, 100년 가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이 복음을 계속 퍼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조직 잘 해서 시대를 잡아나가고 역사를 퍼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뛰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께 쓰이는 손발,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 ◆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확 밀어붙이고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십자가 저 준 조건만 보면 안 됩니다. 계속 뛰어다니고 행해야 표가 납니다. 뛰고 달리며 역사를 펴자고요. 부활 된 자들이 웃어가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화목하며 살고요.
- ◆ 시대의 부활을 더 찬란하게 계속하고, 부지런히 뛰고 달리며 생활의 부활을 해야 합니다. 더욱 이상적인 역사를 이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3월 16일, 차원 높이는 휴거를 해야 합니다. 똑같은 3월 16일이 아니라 차원 높은 휴거 역사를 맞아야 합니다. 각자가 해야 합니다.
- ◆ 찬란한 황금 천국에 살도록, 말씀 들은 모든 자들 더욱 찬란한 부활을 이루기 바랍니다. 아픈 자, 병든 자들 나아서 부활 되고, 경제의 부활, 삶의 부활이 되길 바랍니다. 산 자는 뛰고 달려라. 모두 뛰고 달려 찬란한 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 ◆ 아담 하와 이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겨 일어나 빛을 받해야겠습니다. 이긴 자들이 진 자들을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아직도 부활 되지 못한 자들이 이 주간을 통해 부활 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행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더욱 찬란한 자신의 부활과 아직도 전도되지 않은 가족들, 형제들을 부활시키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읽음

--	--	--	--	--	--	--	--